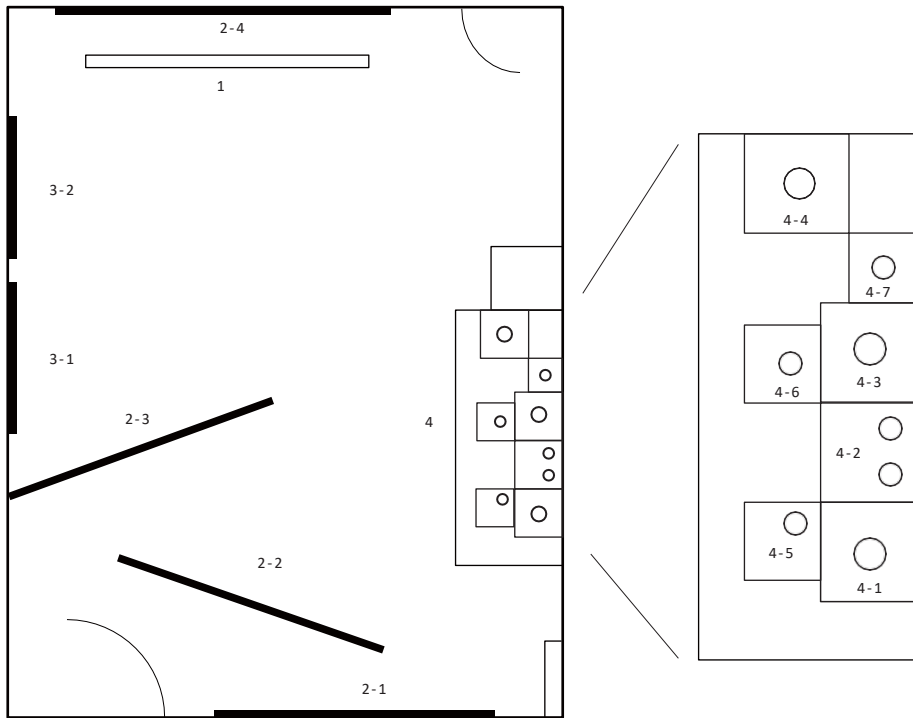


## 아라타 미노: 조용한 생활과 사소한 점유 Arata Mino: Still Life with Minor Occupations

2026. 03. 05 - 2026. 03. 25

ingahee.com | in@ingahee.com



1. 해안에서의 시선, 2026, Tarpaulin photographs (3), steel scaffolding pipes, clamps, etc., 182 × 165 × 60 cm
2. 온실로부터 바다에, 2026, Mesh tarpaulin (4 panels), 160 × 240 cm (each)
3. 숨을 이어가다, 2025–2026, Video installation (BrightSign in custom box), Variable size
4. 사소한 점유 #01–07, 2026, Ceramic dolls (Occupied Japan), army men, acrylic box, PE sheet, etc., Base 30 × 30 cm (each)

아라타 미노(Arata Mino, 일본, 1987년생)는 사진, 퍼포먼스,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허구적 서사와 리서치를 결합해 일상 속에 내재한 사회적·역사적 구조를 탐구하는 작가이다. 그는 미군 기지와 같이 권력과 기억이 교차하는 장소들을 조사하고, 그 리서치를 바탕으로 구성된 대본을 전시와 퍼포먼스의 형식으로 ‘연기’하는 방식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관객을 서사의 내부와 외부 사이에 위치시키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국가, 정체성, 공동체의 경계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직접적인 고발이나 선언 대신 유머와 아이러니, 상황 설정을 통해 관객을 서사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의 작업은 전시 공간을 하나의 무대이자 실험의 장으로 전환시키며, 현실과 허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동시대의 정치적 감각을 환기한다.

INGAHEE는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동시대 미술 공간으로,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 실천을 중심으로 전시와 연구를 진행하는 플랫폼이다. 회화, 사진, 미디어,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인터디스플리너리 작가들과 협력하며, 동시대 사회 구조와 문화적 이슈를 탐구하는 작업을 소개한다. 전시, 리서치, 퍼포먼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사회, 그리고 장소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며, 동시대 미술이 제기하는 질문을 공론의 장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미디어와 설치 작업을 중심으로 한 실험적 전시를 통해 새로운 작업 형식과 전시 방식을 탐구한다. 또한 INGAHEE는 전시 공간을 실험과 시장이 만나는 테스트베드(testbed)로 제안한다. 아트페어와 국제 미술 시장과의 연결을 통해 작가들의 작업이 동시대 미술 담론과 시장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유통되는지를 탐색하며, 전시와 마켓 사이의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라타 미노의 개인전 《조용한 생활과 사소한 점유》(Still Life with Minor Occupations)는 도자기 인형 설치 작업 〈사소한 점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풍경을 담은 사진 시리즈 〈해안에서의 시선〉(Perspective on the Shore)과 〈온실로부터 바다에〉, 그리고 퍼포먼스 영상 〈숨을 이어가다〉(One Breath Followed by Another)를 함께 선보인다. 다양한 매체로 구성된 이 작업들은 하나의 전시 공간 안에서 교차하며, 물질과 신체, 그리고 시선의 층위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세계의 구조를 드러낸다.

전시의 영문 제목은 ‘정물’을 뜻하는 회화 장르인 ‘정물(Still Life)’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여기서의 ‘정물’은 단순히 멈춘 사물의 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복잡한 세계를 내포한 채 지속되는 삶의 형식에 가깝다. 거대한 역사와 정치적 사건 속에서도 일상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역사적 구조 속에서 삶은 미세하게 흔들리며 계속 이어진다. 아라타 미노의 작업은 바로 이러한 ‘조용하지만 결코 고요하지 않은 상태’를 탐구한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는 일상의 장면들 속에는 식민주의의 역사, 전후 국제 질서, 그리고 군사 동맹의 구조와 같은 거대한 역사적 힘이 미묘한 형태로 스며들어 있다. 작가는 이러한 구조를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로 드러내기보다, 사물과 풍경, 그리고 신체의 경험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는 관계의 형태로 제시한다.

전시의 중심을 이루는 설치 작업 〈사소한 점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 작품은 전후 점령기에 제작된 ‘미 점령기 일본제작(Made in Occupied Japan)’ 표기의 도자 인형을 주요 오브제로 삼는다. 이 표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연합군의 점령 하에 있었던 시기(1945-1952)에 생산된 수출 공예품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후 질서와 권력 관계의 흔적을 물질적 형태로 남긴다. 작가는 골동품 시장에서 수집한 이 인형들을 전시 공간 안에 배치하며, 점령기의 역사적 흔적을 현재의 시간 속으로 불러온다. 약 14~25cm 크기의 인형들은 전시 공간 속에서 하나의 작은 장면을 형성한다. 인형들은 천으로 감싸여 있으며, 그 주변에는 녹색 플라스틱 장난감 병사인 ‘그린 아미맨(green army men)’이 배치되어 있다. 어린이 장난감으로 널리 알려진 이 작은 병사들은 인형들을 둘러싸듯 포위한 형태를 이루며 배치된다. 이 장면은 전쟁과 점령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재현하기보다는, 그것이 일상의 사물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암시한다.

여기서 ‘점유(occupation)’라는 개념은 단순한 군사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간과 존재, 기억과 시선이 서로를 점유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전후 점령기의 흔적을 지닌 작은 인형은 전시 공간 안에서 조용히 서 있지만, 그 내부에는 복잡한 역사적 시간과 권력의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 작가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거대한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사소한 사물의 형태로 일상 속에 잔존하는지를 보여준다.

사진 작업 〈해안에서의 시선〉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확장한다. 이 작업들은 비무장지대(DMZ), 진주만(Pearl Harbor), 그리고 부산-후쿠오카 해협과 같은 장소들을 병치하며, 동아시아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역사적 기억의 지형을 드러낸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풍경들은 전시 공간 안에서 나란히 제시되며, 국가 간 관계와 역사적 기억의 층위를 드러낸다.

특히 이러한 풍경들은 단순한 풍경 사진이 아니라, 특정한 ‘위치(position)’에서 바라본 시선의 기록이기도 하다. 버스 창문, 페리의 갑판, 군함의 창문과 같은 장치들은 이 풍경들이 이동하는 신체의 경험 속에서 촬영된 이미지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풍경 그 자체보다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관객에게 던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퍼포먼스 영상 〈숨을 이어가다〉에서 신체의 차원으로 이어진다. 이 작업은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숨(Breath)」에서 영감을 받아,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리듬인 ‘호흡’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 번의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삶은 미세하게 흔들리면서도 계속 이어진다. 작가는 이러한 호흡의 리듬을 통해 인간 존재가 공간 속에 잠시 머무르는 일시적 존재(temporary existence)임을 드러낸다.

아라타 미노의 작업에서 물질, 풍경, 그리고 신체는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다. 도자기 인형이라는 사물, 역사적 풍경을 기록한 사진, 그리고 숨을 쉬는 신체는 하나의 전시 공간 안에서 서로를 반사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가 교차하는 ‘사이의 상태(in-betweenness)’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사이의 상태를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본 작가로서 작가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사이의 역사적 관계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위치에서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그 역사적 구조 속에 이미 위치한 존재로서, 자신의 신체와 시선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바라본다. 이러한 태도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선언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역사와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머무르려는 시도에 가깝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전시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세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내고자 한다. 서울에서 이 전시가 열리는 것 또한 그 맥락의 일부가 된다. 역사적 긴장과 교차가 반복되어 온 동아시아의 관계 속에서, 작가는 이 장소에 서서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조용한 생활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관계와 점유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며 지속되는 삶의 형식이다. 아라타 미노의 작업은 그 작은 진동을 응시하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의 구조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

(글. 인가희)



Q. 인가희 | A. 아라타 미노

Q1

아라타 미노의 《조용한 생활과 사소한 점유》(Still Life with Minor Occupations)는 오에 겐자부로 소설 『조용한 생활』에서 제목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물’을 의미하는 조용한 생활(Still Life)과 사소한 점유(Minor Occupation)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 층위를 지닌 개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에게 이 제목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조용한 생활(Still Life)”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정물화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물(Still)’과 ‘생활(Life)’이라는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된 개념처럼 느껴졌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조용한 생활』에서 ‘조용함’은 단순한 평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과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용해 보이지만 결코 조용하지 않은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세 나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외교 질서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주의, 전후 체제, 군사 동맹의 역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는 이 전시를 통해 이러한 보이지 않는 긴장의 상태, 다시 말해 일상 속에 스며든 역사적 관계의 층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Q2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온실 내부 풍경이 인쇄된 대형 매쉬 타포린을 마주하게 됩니다. 약 2.4m 높이의 이미지가 공간을 가로지르며 설치되어 있고, 관람객은 그 사이를 통과하며 전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전시장 벽면은 흰색 타포린으로 감싸져 있어 공간 전체가 마치 공사 현장이나 임시 구조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치 방식은 내부와 외부, 보호와 노출 사이의 긴장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러한 온실 구조와 공사 현장과 같은 공간적 형식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저에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사이의 상태(in-betweenness)’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치 하나의 공사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온실 구조, 타포린, 아시바와 같은 요소들을 사용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안(in)’과 ‘밖(out)’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서로를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실 안에는 꽃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부에서 보호받으며 자라지만 완전히 고립된 존재는 아닙니다. 내부 환경은 외부의 온도와 조건에 의해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작업하지만 자재와 공기, 사람과 시간은 끊임없이 외부와 연결됩니다. 저는 이 구조가 우리가 놓여 있는 지정학적 상황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설치 작품 〈사소한 점유〉(Minor Occupation)에는 약 14–25cm 크기의 세라믹 인형들이 등장합니다. 이 인형들의 바닥에는 “Made in Occupied Japan”이라는 표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연합군의 점령 하에 있었던 시기에 생산된 수출 공예품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인형들이 작품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제가 사용한 세라믹 인형들은 모두 “Made in Occupied Japan”이라는 표기가 남아 있는 물건들입니다. 이 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시기에 생산된 물건에 붙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수출되는 물품에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Occupied Japan’이라는 표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형들을 골동품 시장에서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이 인형들은 대부분 서구적인 얼굴과 의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power)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세계 질서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에 의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이러한 서구 스타일의 세라믹 인형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이라는 존재의 문화적 흔적이자 그 힘에 반응하고 적응했던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사소한 점유〉에서는 이러한 세라믹 인형들 주변에 작은 녹색 플라스틱 군인 장난감, 이른바 “그린 아미맨(green army men)”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군인들이 마치 세라믹 인형들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듯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군인 장난감을 함께 사용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그린 아미맨은 어린이 장난감이지만 동시에 미국 군사 문화의 영향을 드러내는 매우 상징적인 오브제이기도 합니다. 이 장난감은 전쟁과 군대라는 현실을 매우 단순한 형태로 축소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플라스틱 군인들이 전쟁과 점령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어떻게 일상의 오브제 속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라믹 인형이 전후 점령기의 문화적 흔적을 드러낸다면, 이 작은 군인들은 그 역사적 상황을 둘러싼 또 다른 층위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Q5

사진 작업 〈해안에서의 시선〉(Perspective on the Shore)에서는 디엠지(DMZ), 부산-후쿠오카 해협, 그리고 진주만(Pearl Harbor)이라는 세 장소가 나란히 제시됩니다. 이 세 공간은 모두 영토와 경계가 드러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전쟁과 역사적 충돌의 기억이 축적된 장소들입니다. 작가님은 왜 이 세 장소를 하나의 작업 안에서 연결하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A

DMZ, 후쿠오카-부산 해협, 그리고 진주만은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입니다. 특히 DMZ와 진주만은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먼 지형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서로 떨어진 장소들을 하나의 작업 안에서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매우 상징적인 공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일본 작가로 실제로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페리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제 몸의 이동 경로를 통해 이 장소들을 하나의 선 위에 놓고 싶었습니다. 이 장소들은 모두 국가와 국가 사이, 바다와 육지 사이, 이동과 정지 사이에 놓여 있는 '사이의 상태(in-between)'에 위치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장소들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Q6

영상 작업 <숨을 이어가다>(One Breath Followed by Another)는 서울 용산공원과 도쿄 가부키초에서 촬영된 두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소는 모두 미군의 존재와 도시의 역사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에게 용산공원과 가부키초는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닌 장소인가요.

A

도쿄의 가부키초는 제가 2018년부터 계속 촬영해 온 장소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공습 이후 형성된 도시 풍경을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이곳은 한동안 아무것도 없는 빈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점차 지금과 같은 거리로 변화해 왔습니다. 제가 촬영한 거리는 저와 친구들 사이에서 '전쟁의 거리(War Street)'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지명이 아니라, 제가 이 장소를 마치 매우 격렬한 현장처럼 느꼈기 때문에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편, 용산공원은 오랫동안 미군 기지가 자리하고 있었던 서울 중심부의 공간입니다. 현재는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과거 미군 가족들이 거주하던 주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울의 용산과 도쿄의 신주쿠는 서로 정반대의 장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이(in-between)'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두 장소 사이에는 미묘한 연속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관계를 관객이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의식했습니다.

Q7

<숨을 이어가다>에서는 작가의 숨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작품은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숨」(Breath)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자막을 보여줍니다. 작가님에게 '숨'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베케트의 「숨」(Breath)은 약 30초동안 진행되는 짧은 연극으로, 인간의 존재를 극도로 미니멀한 형태로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무대 위에는 한 번의 들숨과 날숨이 울려 퍼지고, 그 아주 짧은 순간 속에서 인간의 삶이 압축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단 한 번의 호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호흡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며 이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에서는 호흡을 단 한 번의 미니멀한 사건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퍼포먼스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는 것, 다시 말해 여러 번,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호흡 말입니다. 그것은 미니멀한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반복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설령 제가 죽은 이후에도 이 작품이 하나의 작업으로서 계속 상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숨을 들이쉬는 행위는 매우 생리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호흡을 하나의 상연으로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그것이 다양한 역사와 정치의 층위를 가로지르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작업은 바로 그러한 시도로서 구상되었습니다.

Q8

이번 전시는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세 나라의 역사적 관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작가님은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동아시아의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작가로서 자신의 위치(position)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작가님에게 이러한 '위치성(positionality)'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

한국, 일본, 미국이라는 세 나라의 관계는 단순한 국가 간 정치 관계라기보다 식민주의의 역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전후 체제, 그리고 이후 지속되어 온 군사 동맹 구조가 서로 겹치며 만들어진 복잡한 역사적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작가로서 한국의 역사와 사회를 다룰 때 저는 이 관계를 외부에서 관찰하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 지배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후에는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 체제 속에 편입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같은 지정학적 질서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관계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역사적 연속성 속에 위치한 일본인으로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이러한 복잡한 관계를 충분히 다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역사와 시선이 교차하는 '사이의 상태(in-betweenness)'에 머무르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러한 위치는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이'에 서 있다는 태도는 때로 책임 회피나 특권적인 관찰자의 위치로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위치성(positionality)'이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몸이 이미 이러한 역사적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의 리서치를 통해 저는 한 장소에 여러 시간의 역사들이 겹쳐 존재하는 층(layer)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연결의 감각인 정(情)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위치성이란 자신의 입장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면서 그 불안정한 사이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감각과 경험의 단편들이 작업의 출발점이 됩니다.